



남북정상회담경축국민대회

2007년 9월19일 오후 2시 서울 삼청동 경남대학교 6.15통일관

 남북정상회담경축국민대회 공동추진위원회

우리 민족의 소원은 조국통일

지난 20세기 식민과 분단으로부터 이어진 고통스런 역사를 청산하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경축하며 평화통일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남북정상회담경축국민대회

식순

노래패 우리나라 축하 공연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합창

사회 : 박해전 집행위원장

민족의례

개회사 - 이장희 공동대회장

격려사 1 - 이재정 통일부장관

격려사 2 - 김원웅 국회 통일외교위원장

대회사 - 박순경 공동대회장

해외동포 연대사 1 - 유태영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상임고문

해외동포 연대사 2 - 오복자 민주노동당 유럽위원회 초대위원장

남북정상회담 지지연설 1 - 이해찬 대통합신당 17대 대선 예비후보

남북정상회담 지지연설 2 - 정동영 대통합신당 17대 대선 예비후보

남북정상회담 지지연설 3 - 권영길 민주노동당 17대 대선 예비후보

남북정상회담경축국민선언 낭독

〈6.15 통일아리랑〉 합창

폐회

축시/

남북정상회담을 쌍수를 높이 들어 환영한다

- 남북정상회담경축국민대회에 부처

이제 남북 두 어른이 만난다
역사가 잠을 깬다
62년간 분단 뒷걸음질을 끝장내고
눈물을 비단폭 삼천리에
새 발걸음을 내딛는다
2천년에 6.15통일시대를 열었건만
친일 친미 수구배들 때문에
뒷걸음질로 주춤거리다가
이제 정녕 참역사의 바퀴를 앞으로 힘차게 굴리려 한다

지난 백년을 아우성치며 각혈하며 헛살았다
친외세 사대주의자들은
친일경찰과 미군을 등에 업고
반일 독립투사들을 빨갱이로 몰아 살인적인 탄압을 하고
제가 살아남을 구미에 맞춰
역사를 팔고물처럼 주물렀다
우리 겨레는 지난 62년간
본의 아니게 갈라져 비분강개 피 세월로 헛살았다

북의 자주 자력 주체외교로
미국은 드디어 북미 평화협정에 응할 뜻을 비쳤다
평화협정에는 남북 비핵화 한미동맹 폐기 미군 철수가 뼈대를 이루어야
한다
오늘 세계사 전개를 일별하면
평화세력과 침략세력의 대립이요
새 자주사상과 낡은 패권주의의 대결로 요약된다
그 전개 과정과 결실은
지난 오천년 역사의 가르침에서
해답을 찾아낼 수 있다
우리 겨레는 근세에 비록 식민과 분단으로 헛살아왔지만
역사 발전의 믿음으로
희망을 잃지 않고 꾸준히 싸우며
오늘에 이르렀다

남북 정상은

오늘 세계 분쟁의 중요 원인은 미국의 침략 욕심에 기인함을 확인하고
미국에 대해 자체 포기를 촉구해야 한다
미국은 세계 도처에서 침략의 불을 지르다가
이라크와 아프간 수렁에 빠져 드디어 비명을 지른다
자본주의 욕심의 자승자박이요 자업자득이 아닌가
동방예의지국 우리나라 안방에
미군은 지난 60년간 무엄하게 머무르고도 나갈 엄은 털끝만치도 안한다
대추리에, 제주도에 새 침략기지를 마련, 백년 지배를 꿈꾼다

남북 정상은 이번 만남에서

남북의 분단 요인을 말끔히 제거하고
남북 통상 협력을 증진해 평화와 통일에 도움이 되는
만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친일 친미 수구배들은
정상회담을 반대하며 남북 대결로 치달아
통일판 평화판을 깨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역사는 저들의 손을 결단코 들어주지 않는다
우리 진정한 애국애족애민 통일세력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역사발전의 거보라 인정하고
한라산 백두산도 들으란 듯 목청 돋우어 환영한다
정상회담 대성공을 위해 장애망을 싹 다 걷어내고
전력투구 매진할 것이다

정상회담 성공적 개최는 12월 대선에서

우리 평화통일진영의 승리를 담보할 것이다
62년간 반공교육에도 불구하고 분단의 쓰라림은 우리에게 많은 깨우침을
주었다
우리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전폭 기대한다

반역사 반민족 반동세력은 설 자리가 좁아지자 악을 쓰지만

저들의 운명은 풍전등화다

흰옷 거래답게 고이 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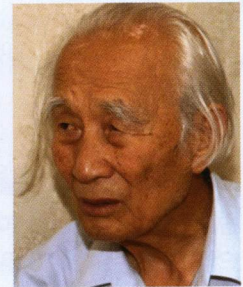
우리 민족민중 통일진영의 기세는 옥일승천

승리의 통일봉우리를 향해 내달린다

남북 정상회담 만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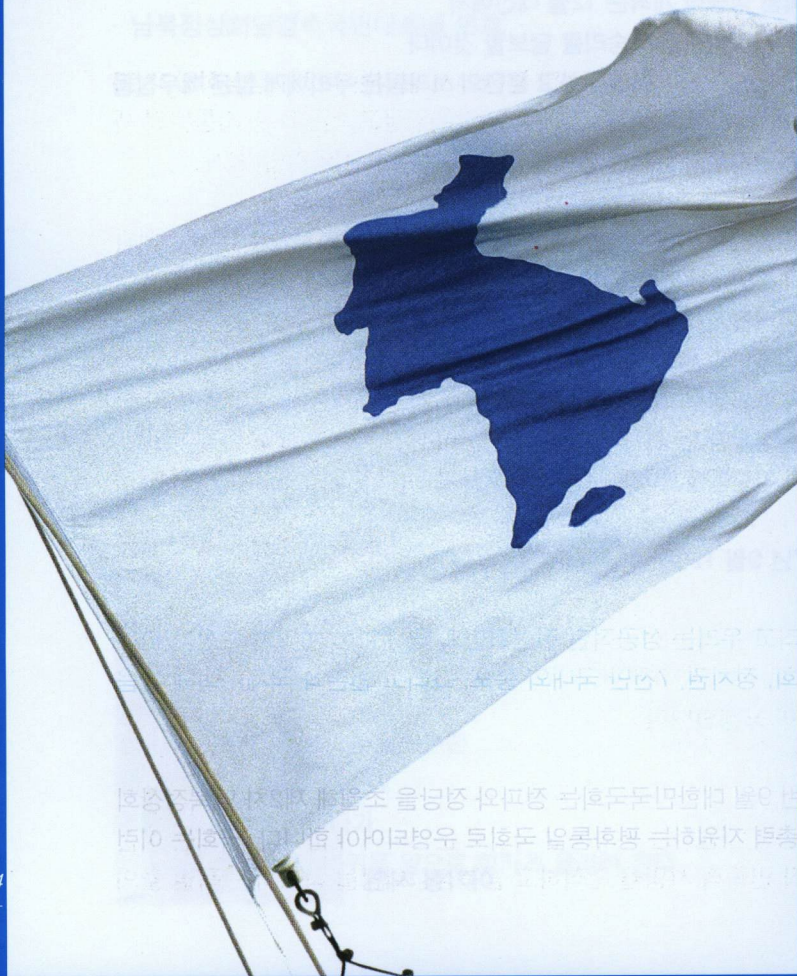
조국의 자주통일 만세!

(2007년 9월 19일)



이기형 시인

개회사



남북관계 발전의 역사적 고비마다 주요 행사를 치러 온 이곳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통일관에 오늘 국내외 7천만을 대변하는 겨레의 양심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 국내외 제정당 및 사회단체는 오는 10월 2-4일 평양에서 개최되는 역사적인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과 경축을 기원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7천만 국내외 온 겨레와 함께 진심으로 정상회담 개최를 축하하고 그 성공을 간곡히 기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존경하는 국내외 동포 여러분,

21세기가 시작된 지도 7년이 지난 지금 국제사회의 보편적 큰 흐름은 급속하게 국제평화와 인류복지, 그리고 친환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유럽연합(EU), 미주국은 미주기구(OAS),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은 아프리카통일기구(OAU)라는 지역통합협력기구를 중심으로 긴밀한 지역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인류복지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아시아 특히 동북아만이 한중일간에 의사소통과 지역 협력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냉전시대를 아직도 마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동북아는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인류사회와 국제사회의 발전을 위해 귀중한 잠재력을 가진 나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세기 이상 지속되는 한반도의 분단체제와 한중일간의 역사 왜곡으로 인한 갈등이 동북아 국가들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흐름에 기여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분단체제의 극복 없이는 동북아 평화는 물론이요, 국제사회와 인류사회의 발전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7천만 겨레 여러분

우리의 분단은 전범국가인 독일과 달라 20세기 말 냉전시대의 강대국의 희생물입니다. 그러므로 미소중일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들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적극 협력할 책무가 있습니다. 미국과 주변국들은 말로만 한반도 평화통일을 외칠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통일과 분단체제 극복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분단체제 문제를 다른 국가들의 탓으로만 돌리고 또 그들의 노력에만 마냥 맡겨둘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조속히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평화통일에 대한 민족적 역량을 능동적으로 착실하게 준비하고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분단체제 기간 중 우리는 민족의 운명이 우리의 의지와는 달리 한반도에 전쟁재발이라는 제2의 한국전으로 비화할 수 있는 위험성을 수차례 경험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과 한미관계는 병행 발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남북한의 최고지도자가 한반도의 평화, 번영, 그리고 통일 문제에 대해 진솔하게 의견을 교환하며, 냉전시대에 본의 아니게 꼬여진 분단의 매듭을 푸는 큰 정치적 결단을 조속히 내리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행히 오는 10월 2일-4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2차 정상회담이 50년 이상의 한반도의 분단체제의 쇄사슬을 끊고, 한반도 평화통일의 새로운 지평을 활짝 여는 성공적 결과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지난 8월5일 정상회담 합의문에서 약속한 대로 6.15 남북공동선언과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확대 발전시켜 [한반도의 평화],[민족공동번영],[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는 포괄적인 틀과 원칙을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이 법적으로도 남북간에 적대관계의 종식과 한국전쟁의 종결을 매듭지어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이루는 계기가 되어 주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한반도에 조속히 평화체제가 확고하게 제도화되고, 남북연합시대를 열어주는 평화통일의 새 지평이 열리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남북경제공동체에 대한 큰 약속을 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공적인 정상회담의 국내외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국회, 정치권, 7천만 국내외 동포, 그리고 언론과 국제사회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 이번 9월 대한민국국회는 정파와 정당을 초월해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총력 지원하는 평화통일 국회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이런 역사적 민족적 사명을 인식하고 남북정상회담을 경축하는 특별 결의

개회사

문을 채택해주길 바랍니다.

□ 정치권은 반 615 세력을 제압하고 평화통일의 장에 앞장서길 바랍니다. 우리는 6.15 공동선언에 따라 정치권이 앞장서서 정파와 정당을 초월해 남북 정상회담을 적극 지지 성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7천만 국내, 해외 동포에게 요청합니다. 북녘 수해복구지원 운동에 적극 동참합시다. 4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북녘에 보내는 동포애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더욱 크게 만드는 바탕이 될 것입니다.

□ 우리는 일부 언론에 요청 합니다. 우리 언론도 이제 전쟁과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한반도 평화와 민족화해를 조성하는 평화통일 지향적인 언론으로 거듭나길 요청합니다. 분단국가의 언론의 사명은 이념적 지평을 넓히고, 이번 정상회담을 지지하고 성원하는 민족 화해 지향적인 언론이 될 것을 요청합니다.

□ 우리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요청합니다. 이번 유엔 총회는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지지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적극 지원하고 성원하는 유엔 특별결의를 해주길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추진위원 여러분,

오는 이 자리에는 이역만리 유럽, 미국에서 그리고 가까운 일본에서 해외동포의 민족적 양심을 알리려는 해외동포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또 21세기 조국의 통일을 완성해줄 청년 대학생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1세기 이 나라를 이끌어갈겠다는 제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야, 시민사회단체, 여성단체, 민족단체, 종단, 노조 등 각계를 대변하는 민족의 양심세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존경하는 7천만 겨레 여러분,

이번 정상회담은 반드시 성공해야만 합니다. 아직도 민족 양심과 시대 정신을 거부하고 정상회담을 폄하하는 일부 국내외 세력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을 폄하하고 방해하는 어떠한 행태도 온몸으로 막을 것이고, 저지할 것입니다. 분단의 유산과 멍에를 우리 후손들에게 21세기에 더 이상 물려주지 않기 위해 우리 모두 [정상회담경축위]를 중심으로 단결하고 모두 참여하여 정상회담 성공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상회담 경축 추진위]는 이 땅의 순수한 풀뿌리의 진정성과 열정적 자발적 노력으로 짧은 기간내에 결성하여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단기간 내에 준비하였기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국민여러분들은 [정상회담 경축 공동 추진위]의 평화통일에 대한 순수성, 열정 그리고 창발성과 도덕성만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상회담 경축 추진위]는 항상 열린 자세로 국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질책에 임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를 간곡히 원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경축 추진위]는 오늘부터 10월 2일까지 [한반도 평화 통일 의 주간]으로 선포하고, 정상회담 성공기원을 위한 경축 플래카드 걸기, 강연회, 음악회 등 거리 캠페인을 범국민적으로 벌일 것입니다. 국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본 국민대회가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시키고, 나아가 한반도 분단체제 극복과 평화체제 구축에 하나의 역사적 민족적 디딤돌이 되길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9월 19일



남북정상회담경축국민대회 공동추진위원회 **이장희** 상임공동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 한국외대 부총장)

대회사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는 제2차 남북, 북남 정상회담을 한없는 기쁨으로, 우리 온 국민을 대표하여 이 경축 국민대회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함께, 존경하는 남북, 북남 두 정상님들께 축하드리며, 우리의 기대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6.15 공동선언 실천을 주축으로 이 땅의 평화체제 확립과 남북의 경제공동체 조성을 위한 결정적 초석을 세우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6자회담의 2005년 9.19 공동선언은 북측의 핵문제 해결과 더불어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과 남-북-미-중 4자 협상의 필요성을 확인했으며, 2007년 2.13 합의에서 그 공동선언은 재확인 되었습니다.

오늘의 남북정상회담경축국민대회는 특히 7년 전 55년 만에 처음 만난 남·북한의 두 정상이 백화원 영빈관에서 6월 14일 오후 3시부터 6시 50분까지 3시간 50분에 걸친 마라톤 정상회담 끝에 합의한 5개항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진전시키는 데 대한 기대를 가지고 모였습니다. 당시에 합의된 주요 내용은 첫째,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둘째, 1국가 2체제의 통일방안 협의, 셋째,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 넷째, 경제협력 등을 비롯한 남북간 교류의 활성화 등 두 정상 간에 합의를 본 바 있습니다.

1. 우리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8천만 민족의 염원인 남북통일의 대장정에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회담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6.15 공동선언의 제2항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7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연합-연방제 실현에 대한 민족적 염원이 어느때보다도 강합니다.

이러한 연유로 해서 연합-연방제 통일의 과제와 결부시켜서 여기에 한 시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9월11일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평화선언이 남북 정상 핵심의제”라고, ‘평화선언’은 ‘평화협정’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 것으로 말씀한 것 같습니다.

〈평화선언〉은 〈평화협정/조약〉 체결의 서입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평화선언/평화협정〉이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의제라면, 이 귀중한 정상회담이 6자회담의 틀러리 역이 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아니 됩니다. “핵 넘어 평화체제 전환” (한겨레)이란 6자-4자회담에서 결정될 주제이며, 우리의 정상회담은 그 이상의 핵심주제, 즉 ‘분단을 넘어 6.15 공동선언 실천’ 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6.15 공동선언 제2항의 실천문제를 주축으로 이 땅에서의 평화체제 확립과정과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 확립을 위한 우리의 염원을 반드시 관철시켜 주실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첫째로 북측의 핵문제 해결과 더불어 둘째로 남북, 북남 정상의 주도 아래서의 남·북·미 3자 정치-군사회담의 정례화를 통하여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전히 해소하고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평화조약체결을 통한 한반도에서의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주시기를 8천만 민족의 이름으로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연합-연방제는 단일 연방국가와 두 정부의 연합에 의한 남북, 북남의 평화 공존, 공영, 경제공동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현재로서는 최선의 통일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6.15 공동선언 제2항 연합-연방 실천 방안을 구체

적으로 확정하여 주신다면, 이것이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 확립과 남북, 북남의 경제 공동체 조성의 초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러한 평화체제 확립 과정은 통일과업의 원천적 전제이며 기반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세계의 정의롭고 평화로운 새 질서 창출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2. 제2차정상회담을 통하여 남북, 북남의 경제공동체 활성화로 평화 통일을 8천만 민족에게 안겨주기를 기대합니다.

6.15선언 제4항에서,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 의제는 남북, 북남의 평화공존과 공영, 특히 민중의 생존권 해결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무궁무진한 가능성, 우리가 지금까지 막연히 상상해 온, 해외동포들을 포괄하는 우리 민족경제 형성의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선 남북, 북남의 민생문제 해결의 일환인,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서는 공동어업을 고려하여 주시고, 개성공단과 같은 산업 단지를 추가적으로 확대 개발하고, 북녘 사회기반시설, 전력발전 시설, 경의선과 경원선 철로 복원 등을 위한 허심탄회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통한 남북, 북남의 상생의 돌파구를 두 정상들께서 활짝 열어 주시어, 북녘의 자원 공동개발 추진을 구체적 그리고 가시적 성과를 올림으로써 분단을 넘어 통일의 시대로 접어드는, 이 시기를 살아가는 온 국민과 인민들에게 많은 보람과 선물들을 듬뿍 안겨주시기 바랍니다.

대회사

3. 민족이 남과 북을 자유롭게 왕래할수 있는 구체적인 합의가 성사되기를 바랍니다.

6.15선언 제3항에서, 남과 북은 2000. 8. 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그간에도 상호합의를 성실하게 지켜나왔지만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1천만 이산가족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경과할수록 고령으로 인하여 이산의 한을 품고 세상을 떠나는 가족이 늘고 있습니다. 천륜을 어찌 우리가 가로막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선은 일정한 장소에서 상시적인 이산가족의 만남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가시적인 조치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민족사에 길이 남을, 민족적인 숙원을 풀어가는, 새로운 주춧돌을 놓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또한 경축하는 바 본인의 결론적 제안을 강조드리면서 대회사를 마칠까 합니다.

첫째로, 앞서 말씀드린 연합-연방 통일방안 실천을 중심으로 하는 시안적 제안이지만, 본래 연합-연방제 통일방안들에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시고 이 시안적 제안을 고려하여 주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이번 정상회담이 남북, 북남의 연합-연방 민족회의를 설정하신다면, 그것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실무회담이 필요할 것입니다. 연합-연방제 민족회의는 남북, 북남 정상을 정점으로, 남북, 북남 각료회의와 평의회를 주축으로, 6.15 공동선언 민족공동위원회-제반 사회단체-문화단체-종교계-학계대표들로 구성되고,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 확립과 경제공동체 조성 과정을 관장하는 의결기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정상회담은 연합-연방 민족회의-준비위 설정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회담에서 고통과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의 분단상황을 넘어서는 결정적 계기를 두 정상들께서 활짝 열어주시기를, 우리 국민을 대표하여 간곡히 청원하며 대회사에 갈음합니다.

다시한번 제2차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진심으로 경축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9월 19일



남북정상회담경축국민대회 공동추진위원회
상임공동대표 박순경
(통일연대 명예대표)

해외동포 연대사



1 재미동포 연대사

친애하는 남녘동포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경축국민대회에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된 것은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 데 있어서 “남과북해외”는 서로 떼어 놓을 수 없으며 그 어떠한 차이점이나 구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 재미동포전국연합 책임 일꾼들은 지난 6월15일에 평양에서 거행한 “615공동선언실천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에 갔었습니다.

그때 그 통일대축전 행사는 한나라당 일부 불순한 참가자들과 민화협의 일부 불순한 참가자들의 방해공작으로 인하여 파행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측이 그에 대한 책임과 재발방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허무하고 쓸쓸한 심정을 품고 우리들은 미국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남북정상회담경축범국민대회”는 수치스러운 과거의 평양에서의 파행의 기억을 일소하고, 또한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한나라당과 외세의존적인 반통일세력들의 방해와 음모들을 완강히 제압하고 615시대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민족통일의 새길을 활

짜 열어 나가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저는 재미동포전국연합회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서 연대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남녘에 계시는 조국 동포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미국에서 지난 8월8일에〈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재미동포전국연합회와 615 미국위원회는 합동으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야말로 민족사적 쾌거이며 조국평화통일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을 확신하고 열렬히 환영하면서 미국 로스앤젤리스에서 8.15민족통일 미국지역대회를 성대히 개최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8.15 민족통일 미국지역대회를 진행하는 바로 그날 그 현장에서 방금 전해진 CNN, ABC TV 방송의 보도를 통하여 북녘의 수해 소식을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4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크나큰 고통을 겪게 된 북녘의 동포들을 위하여 참가자들은 북구지원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현장에서 모은 성금과 그후 15일 동안 모금운동을 전개하여 5만달러를 모금하였고 지금도 계속해서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도 아울러 전해드립니다.

친애하는 남녘동포 여러분, 우리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남과 북, 북과 남 사이에 유익, 불이익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수구 냉전적 사고방식과 외세의존적 반통일적 시각을 적극 배격해야 합니다. 우리는 조국반도의 분단을 고착시키고 소극적인 평화체제를 유지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한국의 반민족적 정치세력들을 경계하면서 분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과 민족자주평화통일을 위한 거족적이며 창조적인 결의와 단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조국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참된 통일 운동은 반드시 남과 북 해외동포들이 주체가 되어 3자연대운동에 의하여 전개되어야 하며 3자연대 역량에 의해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지원하는 경축대회를 거행하고 있는 것은 크나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7년 만에 다시 평양에서 열리게 되는 제2차 정상회담이야말로 6.15공동선언 정신에 의거하여 자주적 평화통일을 향한 보다 높은 차원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이번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맞아 우리들의 바람과 함께 실천해야 할 과제에 대하여 몇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전망은 7년 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대중 전 대통령과 맺어진 우리 민족끼리의 연결고리가 이번에 한층 더 보다 굳게 맺어지리라고 전망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순안비행장뿐만 아니라 비행기문까지 걸어와 정열적으로 포옹하여 영접한 것처럼 아마 이번에 열리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도 그 이상으로 뜨겁게 영접하여 전세계에 우리 민족끼리의 평화통일 의지를 유감 없이 과시하리라고 전망합니다.

그리고 이번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김대중 전대통령의 “국민의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사이의 연결고리가 이어짐으로 인하여 앞으로 세워질 차기 정권과도 필연적으로 꿇을내야 꿇을 수 없는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운동의 연결고리가 이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말하는 연결고리는 단순한 상호 신뢰구축이나 경험 활성화 같은 것에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먼저 우선해야만 할 것은 우리 민족의 통일은 반드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는 데 더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미관계 개선이나 한미관계 유지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것은 민족공조와 우리민족끼리 평화통일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정상회담의 의미와 뜻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반도에서 외국군은 반드시 철수해야 하며 미국의 핵우산 같은 것은 반드시 완전히 폐기시키고 무효화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남과 북에서 참된 비핵화 평화통일은 성취될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때 미국방문과 관련하여 “사진이나 찍으려고 미국엔 안가겠다”라고 말 한바 있습니다. 며칠 전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에게 보여준 당당한 주장은 남북 정상회담의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민족적 큰 희망을 품고 우리가 실천해야 할 과제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국제정세는 급변하여 미국에 모든 것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권은 수구와 매국적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냉전적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통일운동 세력을 무력화시키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철폐와 미군철수 운동은 평화통일로 가는 정로이며 지름길입니다. 국가보안법 철폐와 미군철수 없는 통일은 있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이번 선거는 “친북좌파와 보수우파의 대결”이라고 주장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은 어제는 정상회담을 찬성하는 것처럼 발언하고 오늘은 정상회담을 반대한다고 말을 바꾸어 하면서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해내의 동포들이 또 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일 본땅에서 애국적인 재일동포 1세, 2세들은 이국 땅에서 비통한 피눈 물속에서 고령화로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재일동포들의 비운을 생각할 때 통일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하여 우리는 심혈을 다해 싸워 야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처한 오늘의 상황에서 하루속히 분단을 끝장 내고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 모두는 사상과 이념, 신앙과 정견 등 모든 차이를 초월하여 오로지 민족대단결의 정신, 6.15정신, 7.4남 북공동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단결단합하여야 합니다. 진보개혁세 력들이 단결하지 못하면 미국에 지배와 간섭의 기회를 허용할 뿐입니 다. 진보개혁세력이 단결하지 못하면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와 한국 의 수구반통일 세력은 분단체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더욱 굳게 결탁 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황금과 같은 획기적인 상황 변화의 기회를 활용 하는가, 아니면 망쳐버리는가 하는 분기점은 통일을 지향하는 진보개 혁세력들이 단결하는가 단결하지 못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해

내외 동포들이 모두 단결단합하여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평화통일의 활로가 활짝 열리도록 혼신을 다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2007년 9월19일



유태영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상임고문

2 유럽동포 연대사

반갑습니다.

남북정상회담경축국민대회에 참석하신 각계각층의 국민여러분,

저는 우리와 똑같은 분단의 아픔을 겪었던 독일에서 온 민주노동당 유럽위원회 초대위원장 오복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한국으로 오는 날까지 저의 집에서 함께 있었던 한 중증장애인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손도 쓸 수 없고, 발도 쓸 수 없는 중증의 뇌성마비 장애인의 몸으로 1년3개월 전 서울을 출발하여 그리스를 거쳐 유럽 32개국, 26,000km의 그 긴 거리를 돌아 독일로 온 최창현이라는 청년입니다. 어떻게 비장애인들도 하기 힘든 그 먼 여정을 올 수 있었냐는 저의 질문에 그는 바로 우리의 땀땀어리가 몸이 반으로 나뉘어져 걸지도 못하

고 휠체어를 탄 반신불수의 장애인과 같으며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장애와 더불어 이 아픔을 더 절실하게 극복하고자 먼 길을 나섰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온 후 그는 아시아 실크로드를 통해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년 간의 통일실크로드 대장정을 시작하였습니다. 한반도가 분단이 되기 전 1931년까지 중국, 유럽대륙을 잇는 평양에서 런던까지 운행하는 기차표를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분단으로 말미암아 끊어진 철길과 물길이 혈관에 피가 돌듯, 통일 후 유럽과 아시아가 다시 이어져서 세계 곳곳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날들이 머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이는 2000년 6.15 공동선언의 강한 생명력과 이를 거름으로 제2차 남북정상들의 상봉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2차 남북(북남) 정상회담이 발표되었을 때 남북동포들은 물론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해외동포들까지도 2000년 1차 정상회담을 맞이할 때의 흥분과 기대에 젖게 했습니다.

교류와 협력, 만남과 상생의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일깨워준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승화시켜 이제 우리는 통일의 구체적인 집을 지어가야 할 것입니다. 제 정당과 사회 각계각층을 아우르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앞으로 구체적으로 만들어갈 통일의 집을 설계해야 할 것입

니다. 1948년 평양에서 개최되었던 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가 꿈꾸던 미래는 60년이 흐른 오늘, 우리의 역사적 임무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10여 일을 앞두고 있는 제2차 정상회담은 바로 이런 측면에서 통일에 장애가 되는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애를 제거하고 이로 인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정치군사회담의 활성화는 물론 구체적인 통일의 집을 지을 수 있는 통일방안 합의, 민족자립경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2차 정상회담을 환영하는 것과 더불어 두 정상분들이 만남의 내용에 충실하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상회담으로 마련될 통일의 집의 골조 위에, 전민족적으로 참여하여 아름답고 튼튼한 통일의 집을 완성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임무를 제2의 제정당사회 단체연석회의의 성사로 시작하여 봅시다.

2007년 9월19일



오복자 민주노동당 유럽위원회 초대위원장

남북정상회담경축국민대회 17대 대선 예비후보 연설



이해찬
대통합민주신당
제17대 대선 예비후보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한반도 시대의 개막

존경하는 박순경 대표님, 이장희 대표님,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경축하기 위해 오신 참석자 여러분,

10월 2일 개최되는 역사적인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경축하는 뜻깊은 국민대회에 지지의 말씀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성원과 지지가 더해져 더욱 성공적인 회담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저는 대통령 예비후보지만 그동안 공식에서나 사석에서나 한반도 평화의 기회를 잡는 일이 대선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5년에 한번씩 치르는 일이지만, 이번 기회는 분단 60년, 대북 평화협력정책 10년 만에 찾아온 정말 귀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즈음은 생각을 조금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미국대사 앞에서 '친북좌파' 운운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일이란 생각이 듭니다. 결국 본격적인 일은 다음 정부가 해야 하는데, 지난 10년간 꾸준히 해 왔던 노력의 결과를 한 번에 망쳐놓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

게든 대선도 이겨야 하겠다는 결의를 더욱 다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저는 다음 정부가 이끌 시대를 한반도 시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시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안보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광복과 함께 찾아온 분단은 민족을 남과 북으로 갈라놓았습니다. 한국은 한반도의 남쪽에 갇혀 민족사가 아닌 분단사를 강요당했습니다. 분단은 전쟁으로 이어지고 전쟁은 분단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한반도는 분리된 민족사를 이어 민주와 평화, 번영의 민족사를 쓰려는 사람들과 분단을 통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갈등으로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1998년 국민의 정부의 출범과 6.15 남북정상회담은 분단의 시대를 평화의 시대로 바꾸고 통일의 시대를 바라보게 하는 일대 전기였습니다. 독재와 인권유린,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를 위해 분단을 이용했던 세력들은 정권을 잃고 공안기관을 잃고 특혜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를 얻고 인권을 얻고 평화를 얻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켈리 차관보의 농축우라늄 프로그램

발언으로 촉발된 제2차 북핵 위기는 작년 10월 핵실험까지 극단적으로 심화되고 분단 세력들은 공공연하게 무력 충돌을 입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많은 노력 또한 있었습니다. 김대중 전대통령님을 비롯해 국민의 정부에서 햇볕정책을 주도했던 분들은 큰 희생을 치르면서도 한반도 평화와 한반도 경제를 위해 발 벗고 나섰습니다. 저 역시 북한과 중국, 미국과 일본을 다니며 북핵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6.15 정상회담 참석 경험을 바탕으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개최와 의제 설정에 나름대로 일조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북핵 불능화는 순조롭게 해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APEC 회담에서 평화협정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확립하고 한반도 경제를 발전시켜 한반도 시대를 개막할 초석을 놓는 회담이 될 것이며 또한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평화민주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창업보다 수성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햇볕정책, 6.15 정상회담으로 시작된 진정한 남북평화협력의 싹을 참여정부는 한나라당

이해찬 공동 의회총국변함 발출 운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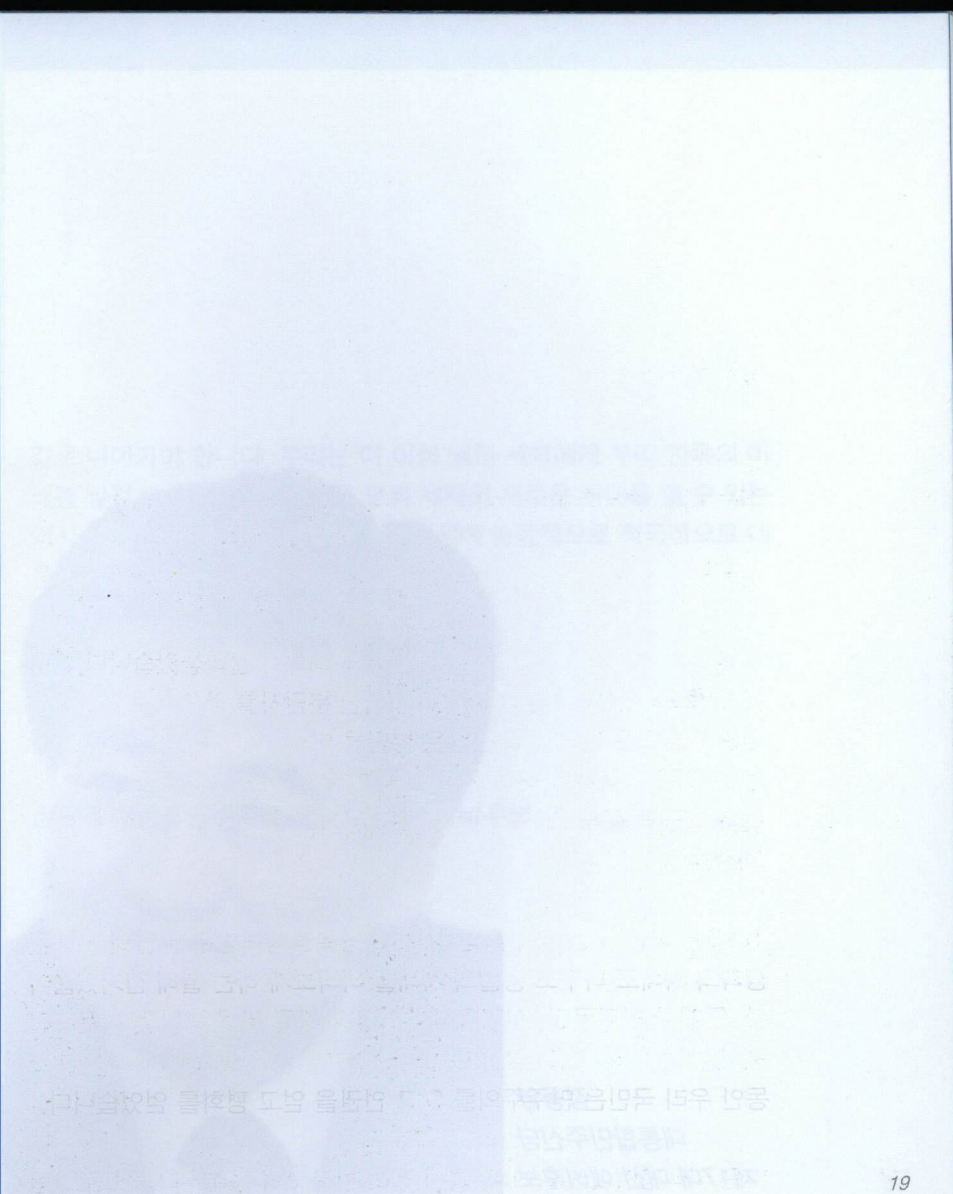
과 수구언론의 온갖 모함과 음해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가꾸어 왔습니다. 그리고 제2차 남북정상회담으로 또 한 번의 도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수성을 위한 참여정부의 필사적인 노력을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국민의 정부가 씨를 뿌리고 참여정부가 공들여 키운 한반도 시대라는 나무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6.15 정상회담을 지키고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지키고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한반도 시대의 개막을 간절히 기원하며 오늘 국민대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참석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9월19일

이해찬 **대통합민주신당 제17대 대선 예비후보**



한반도 평화의 공동 번영의 새로운 출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먼저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한반도 역사는 탈냉전 이후 중요한 전환점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관계 개선으로 남북미 삼각관계의 선순환이 이루어졌던 유일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정부가 클린턴 행정부에서 부시 행정부로 바뀌면서, 한반도 평화의 기회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다시 역사적 기회가 왔습니다. 바야흐로 한반도에 대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2008년 한반도는 빅뱅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대변환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북한이 핵을 포기한 것이 확인되면 북한과 평화협정에 서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전에 부시 대통령은 “내 임기 중에 북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 나는 결단했다.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선택할 때다.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에게 10월 평양에 가서 김정일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제17대 대선 예비후보

위원장을 만나거든 내 뜻을,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뜻을 전달해 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대가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역사적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한말과 해방 후의 중요한 역사적 순간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개척하지 못한 뼈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다가오는 대역사 변환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대변화의 시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제2차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의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7년간의 교류 협력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실질적이고 항구적인 평화의 초석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놓아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을 남북한이 선언하고, 남북한 군사적 신뢰 구축을 진전시킬 수 있는 실질적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경제 협력 분야에서도 개성공단 확대, 철도 연결, 한강 하구 공동 개발처럼 평화와 경제 협력을 선순환할 수 있는 평화 협력 사업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번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는 이제 냉전 체제 해체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냉전 세력에게 우리 민족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 체제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역사 인식을 갖고, 격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9월19일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제17대 대선 예비후보*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제 2차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를 다시금 환영합니다.

이념대립으로 인해 같은 민족끼리 총을 겨누는 비극이 무려 반세기나 이어져왔습니다. 아직도 한 집 건너 한 집이 이산가족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남북은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공존, 공생, 공영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정전과 대치라는 '과거'를 뛰어넘어, 평화와 통일의 '미래'로 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위해, 저 권영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6.15 공동선언의 내용을 적극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물론, 이를 전면 발전시켜 '남북평화통일선언'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남북평화통일선언'에서는 변화된 한반도 정세와 그간 남북관계의 발전 정도를 반영하여 6.15 공동선언 2항에 기초한 구체적인 통일방안을 도출하고, 통일담론의 '물꼬'를 틀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남북경제공동체 수립을 위한 공동 조치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통일의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또한 지난 8월에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권영길의 10대 의제'를 발표



권영길
민주노동당
제17대 대선 예비후보

하고 '남북당국관계 상설화'와 '군사적 대치상태 해제', '북미관계 정상화' 등을 촉구하였으며, 2010년 상징적인 통일국가의 출범을 목표로 하는 '코리아연방공화국' 통일 방안을 대선공약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진정한 평화와 통일의 한반도 시대를 열기 위해, 남북의 화해 협력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대북 적대적인 유엔사와 한미군사동맹 구조도 해체해야 할 것입니다.

'평화는 대세, 이제는 통일'입니다.

평화와 통일을 열망하는 7천만 민중의 염원을 모아 남북의 정상이 만나는 10월, 대립과 갈등으로 소모해온 지난 반세기를 뛰어넘을 결정적인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6.15 공동선언의 원칙을 다시금 확인하되, 이를 뛰어넘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청사진을 제시될 수 있도록, 권영길과 민주노동당은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07년 9월19일

권영길 민주노동당 제17대 대선 예비후보

남북정상회담경축국민선언

우리민족의 소원은 조국통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오는 10월 2~4일 평양에서 여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의 이정표인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과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바탕으로 외세가 강요한 분단을 마감하는 조국통일회담으로서 거대한 의의를 갖는다.

남북정상회담은 우리 민족의 6.15 공동선언 실천 운동이 낳은 최상의 결실이며, 평화통일의 분수령으로서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사에 영원히 새겨질 민족의 대경사이다.

우리 국민은 지난 20세기 식민과 분단으로 이어진 고통스런 역사를 청산하고 21세기 새 희망과 행복을 안겨줄 남북정상회담을 가슴 뜨겁게 경축하며 평화통일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다.

정부와 정당, 국회, 사회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 국민들은 남북의 두 정상에 더욱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자신의 책무를 다해야 하며, 숭고한 남북정상회담에 재를 뿌리는 반민족 반통일 반 6.15세력의 망동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남북정상회담경축국민대회에 참가한 6.15 공동선언을 실천하는 국민들과 제정당사회단체 인사들은 오늘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6.15 평화통일의 새 역사가 창조되리라는 신심과 낙관을 갖고 조국통일을 앞당기려는 우리 민족의 한결 같은 지향과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선언한다.

첫째, 우리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6.15 공동선언에 따라 연합연방통일을 선포하고 남북통일공동기구를 설치하는 조국통일회담이 되도록 온 힘을 쏟을 것이다.

우리 민족의 소원은 조국통일이다. 분단의 세월은 너무 길었고 그 고통은 너무나도 컸다. 조국통일은 우리 시대 최고의 인권운동이다. 조국통일은 그 어떤 외세도 그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자연법적 권리이다.

조국통일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지상 최대의 과업이다. 우리 민족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식민과 분단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

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상봉이 되기를 염원하고 있다.

6.15 공동선언에 기초한 조국통일은 어느 한쪽으로의 흡수통일을 배격하고 남북이 각각 체제를 달리하는 지방자치정부를 운용하면서 평화공존 공리 공영을 보장하며 민족 공동의 이익을 안겨줄 것이다.

둘째, 우리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외세의 전쟁 위협을 완전히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를 항구적으로 보장하는 세계평화회담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최근 부시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거론한 한반도 평화조약과 관련해, 남북-미국-중국에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회담을 조속한 시일 안에 열 것을 후진타오 중국 주석과 부시 대통령에게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반도 평화회담이 실현돼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조약을 맺으면, 6자회담이 완결되고 북-미 수교, 북-일 수교로 이어지면서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과 한반도 평화 보장을 위한 국제적 환경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며, 세계평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셋째, 우리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남북해외 8천만 동포에게 새 희망과 행복을 안겨주는 민족공동번영회담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남북 경제공동체를 실현하는 조국통일은 동북아 물류와 관광, 금융의 중추 역할을 가능케 하며 우리 나라를 동북아중심국가로 우뚝 세우고

일본 경제를 넘어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로 이끌어갈 것이다.

조국통일은 또 남북의 천문학적인 분단유지 비용을 민족 복지 예산으로 전환시켜 민생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것이며, 남북경제공동체 운영의 상승 효과로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부강한 나라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할 것이다.

6.15 공동선언에서 천명한 연합연방 평화통일을 최고 수위에서 실현할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21세기 세계사의 주인공이 우리 민족임을 만천하에 떨칠 것이다.

우리 민족은 지난 100년 동안 간악한 일제의 침략과 분단을 강요한 외세 등 모든 난관과 도전을 물리치고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의 장엄한 역사를 창조해왔다.

강대한 제국주의의 침략을 극복한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 위업은 21세기 인류자주와 세계평화의 금자탑으로 빛날 것이다.

우리는 위대한 조국통일의 새 역사를 창조할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경축하며, 6.15 공동선언의 길을 따라 평화롭고 번영하는 통일조국을 향해 힘차게 전진할 것이다.

2007년 9월 19일 서울

남북정상회담경축국민대회

함께 부르기

6.15 통일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6.15 공동선언 통일의 길을
우리 민족끼리 활짝연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저기 저 산이 백두산이라지
민족의 자주로 찬란하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저기 저 산이 한라산이라지
평화의 세계로 나아간다

* 신심과 낙관을 갖고 희망차게 부르세요.



남북정상회담경축국민대회

취지문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오는 10월2~4일 평양에서 여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의 이정표인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과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기초하여 외세가 강요한 분단을 마감하는 조국통일회담으로서 거대한 의의를 갖습니다.

우리 국민은 지난 20세기 식민과 분단으로 이어진 고통스런 역사를 청산하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경축하며 평화통일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경축국민대회 공동추진위원회는 이런 절절한 국민의 염원을 모아 각계각층 국민들과 제정당사회단체 인사들이 참여하는 국민대회를 오는 19일 서울 삼청동 경남대학교 통일관에서 개최합니다.

공동추진위원회는 이를 통해 남북정상회담에 재를 뿌리는 반 6.15세력의 망동을 민족양심으로서 제압하고 남북의 두 정상이 더욱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공동추진위원회는 6.15 공동선언을 실천하는 국민들과 제정당사회단체 인사들의 지혜와 정성을 모아 6.15 평화통일의 분수령을 이루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성공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07년 9월 남북정상회담경축국민대회 공동추진위원회

남북정상회담경축국민대회

국회 기자회견문

남북정상회담을 지원하는 평화통일 정기국회를 촉구한다

- 남북정상회담 경축 범국민운동을 제안하며

우리는 오늘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남북정상회담 경축 범국민운동을 긴급히 제안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오는 10월2~4일 평양에서 여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6.15 남북공동선언과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으로 확대 발전시켜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 데서 중대한 의의를 갖는 민족의 대경사로서 온 겨레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국회, 남북정상회담 경축 특별결의안 채택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우리는 먼저 이러한 민족적 대경사를 앞두고 17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표류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며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합니다. 9월 정기국회는 정파와 정당을 초월해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총력 지원하는 평화통일 국회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이런 사명을 인식하고 남북정상회담을 경축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해 이 회담의 거대한 의의를 국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앞장서서 온 나라가 남북정상회담 경축 분위기로 차 넘치게 해야 합니다.

국회는 이와 동시에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의원들의 연대에 기초해 2004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로운 조건에서 국회가 평화통일 의지를 갖고 있다면 6.15 공동선언 실천을 가로막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노무현 대통령이 방북길에 오르기 전에 폐지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치권, 반 6.15세력 제압하고 평화통일 정치 열어야

우리는 6.15 공동선언에 따라 정치권이 앞장서서 정파와 정당을 초월해 남북정상회담을 적극 지지 성원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정치권이 합심해 남북정상회담을 반대하고 있는 반 6.15 세력이 얼굴을 들지 못하도록 제압하고 6.15 평화통일 정치의 새로운 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북녘 수해복구 지원운동에 적극 동참하자

우리는 모든 국민이 지금 각계에서 벌이고 있는 북녘 수해복구 지원운

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호소합니다.
4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북녘에 보내는 동포애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더욱 크게 만드는 바탕이 될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 경축 플래카드 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이자

우리는 제정당사회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 남북정상회담을 경축하고 그 성공을 기원하는 플래카드 걸기 운동을 9월 한달 동안 전국적으로 벌여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남북정상회담의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각 계각층의 이런 활동에 적극 연대할 것이며, 정책 토론회와 경축음악회, 거리캠페인 등을 활발히 벌여나갈 것입니다.

제정당사회단체 인사들이 참여하는 남북정상회담경축국민대회

우리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경남대학교 6.15 통일관에서 남북정상회담경축국민대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우리는 6.15 공동선언을 지지하는 국민들과 제정당사회단체 인사들의 지혜와 힘을 모으는 국민대회를 통해 6.15 평화통일의 분수령을 이루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더욱 빛나도록 할 것입니다.

평화통일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최근 부시 미국 대통령까지도 북-미 수교를 서두르는 행보를 보이는

등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는 우리 민족의 소원인 평화통일의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6.15 평화통일의 새 역사가 창조되리라라는 신심과 낙관을 갖고 국회와 정치권, 국민들과 제정당사회단체 인사들이 남북정상회담 경축 범국민운동에 적극 나서주기를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2007년 9월6일 국회에서

남북정상회담경축국민대회 공동추진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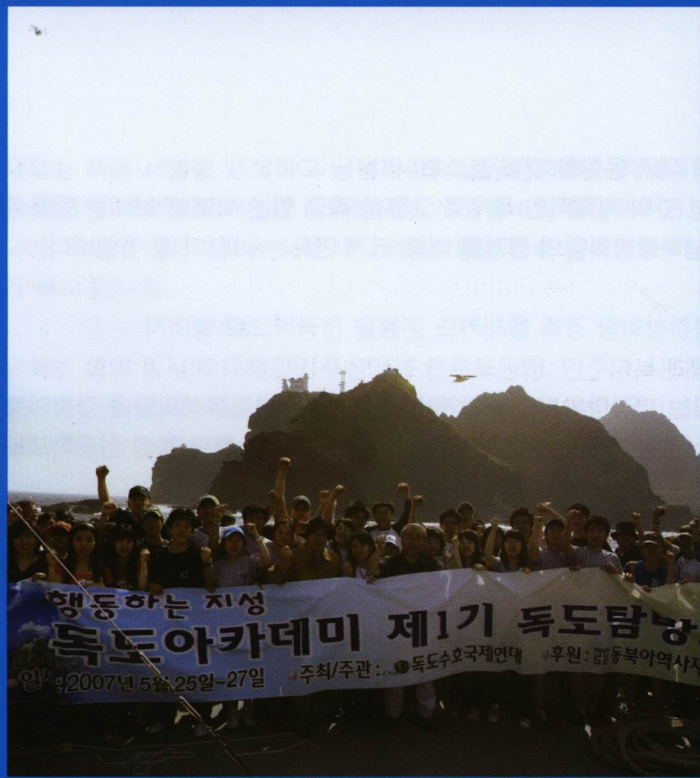


남북정상께 드리는

청년대학생 독도수호 결의문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님!

침략국 일본으로부터 우리 민족의 독립이 세계에 선포된 지 62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침략국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일본해라는 명칭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영토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그간 남북 정부차원에서 누차 시정요구와 경고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3년째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이미 무효화된 제국주의 침략 전쟁에 의한 점령지 권리를 재확립하여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다시 보장받으려는 야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는 명백히 우리 민족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동시에 40여년에 걸친 억압과 학대뿐만 아니라, 물질을 넘어 말과 정신까지 위협했던 혹독한 수탈의 세월, 심지어 위안부까지 동원했던 범죄의 역사에 대해 정당성을 주장하는 파렴치한 행위로서 비록 남과 북으로 갈라진 조국이지만 남과 북을 동시에 향한 국가차원의 또 다른 테러입니다.

독도는 을사늑약 이후, 처음으로 일본 영토로 강제 편입된 아픈 역사

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동의하지 않은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편입이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침략행위입니다. 때문에 독도를 지켜간다는 것은 단순히 조그마한 섬에 대한 영유권의 귀속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더불어 완전한 주권 회복을 상징하는 문제이므로 남과 북이 합심하여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야스쿠니 신사 참배, 위안부 동원 문제와 더불어 자주 독립의 역사와 주권 수호 차원에서 어떠한 비용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역사적인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침략국 일본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전국61개대학 254명의 독도 수호국제연대 독도아카데미 사관생도들은 합심하여 '남북정상께 드리는 청년대학생 독도수호 결의문'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선언문 하나.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정신을 계승하여, 통일조국의 영토주권을 위협하는 일본의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 우리는 통일조국의 주역인 남북 청년대학생들이 합심하여 세계의 양심적 지식인, 언론인, 청년학생, 시민단체들과 더불어 일본의 야만적인 제국주의 의식에서 비롯한 역사 왜곡의 부당성을 전 세계에 고발해 나갈 것이다.

하나. 우리는 세계 각지에 활동하는 양심세력과 연대하여 세계 지도에

표기된 다케시마(Dakesima)와 일본해(Sea of Japan)표기를 삭제하고 '독도'와 '동해'를 기재하는 운동을 전개하며 통일조국을 건설에 앞장 설 것이다.

일본은 역사적 진실과 인류사회의 양심 그리고 자신의 후손들 앞에 솔직해져야 할 것이며, 이는 통일조국과 일본의 관계를 뛰어 넘어 일본 자신의 발전,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한 결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위하여 남과 북의 청년대학생들은 연대하여 독도 수호를 위한 역사적, 학술적 이론무장과 함께 국제 사회에 역사적 진실을 알려나가는 일에 앞장섬으로서, 항일애국선열들의 뜻과 얼을 이어갈 것이며 통일조국 건설에 앞장 설 것을 엄숙히 선언하는 바입니다.

2007년 9월 19일

- 남북정상회담경축국민대회 공동대표 겸 청년대학생위원장 고창근 (독도수호국제연대 집행위원장 / 독도아카데미 교장)
- 독도수호국제연대 독도아카데미 학생대표 김현희

- 가톨릭대학교 김민지, 박민기 / 강남대학교 조유경 / 강원대학교 김미진, 유슬기 / 건국대학교 김정빈, 남궁소영, 전선규, 정혁진, 조아영, 함창식 / 경기대학교 김지영, 서문술, 이정애, 하동관, 하수연 / 경원대학교 이해나 / 경인교육대학교 하유정 / 경희대학교 김민수, 김병민, 김한아, 김혜경, 박선영, 박송일, 송훤, 우영근, 유명원, 이민호, 이연화, 이영선, 이우형, 이지연, 임건호, 장세훈, 조용숙, 조은영, 조했님 / 고려대학교 김문경, 김신기, 김은영, 변진희, 이강, 이석준, 전수현, 정

선경, 진용선, 최시온, 최현우 / 광운대학교 강희선, 유경준, 정종선 /
 국민대학교 김동우, 방설화, 이건행, 이연행, 이현주, 임지선, 조영래,
 황아롱 / 그리스도대학교 이성미 / 나사렛대학교 김대로 / 단국대학교
 김나형, 박세현, 이규찬 / 대구가톨릭대학교 홍혜진 / 덕성여자대학교
 구본경, 권호임, 김능소, 김란희, 김신나, 남유진, 서은혜, 안혜정, 엄선
 화, 유혜민 / 동국대학교 김경화, 김대선, 김지옥, 김하나, 김현기, 서정
 아, 송경섭, 우민호, 이민수, 이은규, 장혜란 / 동덕여자대학교 김란아,
 박지윤, 임정미 / 두원공업전문대학 정병준 / 명지대학교 김현정, 배민
 정, 오현미, 유보람, 정지열, 정혜미 / 백석대학교 김재원 / 부산대학교
 이나영 / 부산외국어대학교 오은호 / 삼육대학교 이진명 / 상명대학교
 강숙경, 고혜민 / 서강대학교 공미애, 김성조, 김소호, 이장미 / 서울교
 육대학교 고문정, 김인선, 박효진, 이유진 / 서울대학교 안우진, 이승
 화 / 서울산업대학교 김정민, 정원중 / 서울시립대학교강명수, 강태규,
 손기창, 손나리, 신혜영, 이동현, 장경태, 전보영, 조유식, 한영은 / 서
 울여자대학교 윤민경, 윤정윤 / 서원대학교 이상민 / 성균관대학교 강
 미랑, 김미한, 김종호, 남은지, 류민수, 박혜미, 성종곤, 원희원, 유현
 중, 정득영, 정미란 / 성신여자대학교 김지현, 오유민, 이세나, 이아람
 / 세종대학교 강성훈, 권선미, 김근영, 김다미, 김지호, 노지현, 류재
 영, 성실, 오창균, 이현진, 장보라 / 수원대학교 이경미 / 숙명여자대학
 교 강민지, 구지혜, 민정, 김동현, 김민수, 김슬기, 김지선, 김효숙, 윤
 수진, 이선정, 이소혜, 이수진, 이주영, 이진주, 이희경, 주정은 / 숭실
 대학교 권해진, 남궁혜영, 장석원 / 아주대학교 김주리, 송은진, 유재

성 / 연세대학교 김유진, 김태경, 나경록, 류용준, 박근호, 소수환, 육진
 수, 이규섭, 장진영, 황호연 / 울산대학교 김화영 / 원광대학교 정승은
 / 이화여자대학교 강민주, 고예지, 김규리, 김윤수, 김태은, 김현희, 박
 금란, 백송이, 이정희, 이주마 / 인천대학교 박충원 / 인하대학교 곽미
 라, 오현호, 유상일, 이경제, 이정균, 장선희 / 전남대학교 강세라 / 전
 북대학교 박도예, 임익현 / 전주교육대학교 정선규 / 조선대학교 김광
 중, 서준용 / 중앙대학교 박경순, 박기훈, 박민주, 박현웅, 송현동, 이미
 지, 임보람, 임원묵 / 청운대학교 서정화 / 추계예술대학교 권형주 / 충
 북대학교 김지혜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박정은, 정의순 / 한국외국어
 대학교 김선영, 김희양, 서여진, 손재영, 신솔, 오승현, 이미현, 이수정,
 이현정, 임현수, 장유진, 최훈 / 한국항공대학교 백승구 / 한동대학교
 김유진 / 한성대학교 김경훈, 노근우, 이주환 / 한신대학교 박초은 / 한
 양대학교 김다영, 김동득, 김민정, 백영아, 이인수, 이혁수, 최명희, 한
 성규 / 홍익대학교 김옥주, 노정하, 박혜정, 오승태 이상 61개 대학 대
 표 254명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방문에 관한 남북합의서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방문에 관한 남북합의서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합의에 따라 오는 8월28일부터 30일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남북 정상분들의 상봉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과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확대 발전시켜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 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게 될 것이다.

쌍방은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접촉을 조속한 시일안에 개성에서 갖기로 하였다.

2007년 8월 5일

상부의 뜻을 받들어

남 측

국가정보원

원장 김만복

김만복

상부의 뜻을 받들어

북 측

통일전선부

부장 김양건

김양건

로무현대통령의 평양방문에 관한 북남합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대한민국 로무현대통령의 합의에 따라 오는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로무현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북남수뇌분들의 상봉은 역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과 《우리 민족끼리》정신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확대발전시켜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 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게 될 것이다.

쌍방은 수뇌상봉을 위한 준비접촉을 조속한 시일안에 개성에서 가지기로 하였다.

2007년 8월 5일

상부의 뜻을 받들어

북 측

통일전선부

부장 김양건

김양건

상부의 뜻을 받들어

남 측

국가정보원

원장 김만복

김만복



남북정상회담경축 국민대회 공동추진위원회

□**고문**: 임기란 전 민가협 상임의장 /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 / 박용길 장로 / 김민하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 전창일 통일연대 상임고문 / 이기형 시인 / 김상근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 김자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장 / 강만길 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위원장 / 송기숙 작가회의 상임고문 / 이정미 6.15부산본부 상임대표 / 박광원 민화협 공동의장 / 박경서 이화여대 학술원 석좌교수 / 김성훈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공동대표 / 장영춘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고문 / 김낙중 평화통일시민연대 고문 / 김난수 5.18기념재단 이사 / 김원웅 국회 통외통위 위원장 / 김철운 (사)충효예실천운동본부 이사장 / 안재구 박사 / 홍근수 평통사 상임대표 / 서형수 한겨레신문 사장 / 이종린 범민련남측본부 명예의장 / 정남기 한국언론재단 이사장 / 류금수 6.15총북본부 고문 / 이천재 전국연합서울 의장 / 가재형 민자통 고문 / 곽태영 민족정기선양회 회장 / 강민조 유가협 이사장 / 강희남 연방통추 상임대표 / 송선근 평화통일시민연대 이사장 / 박중기 추모연대 의장 / 이수갑 민족정기수호협의회 회장 / 강창덕 통일연대 고문 / 조용준 민족일보진상규명위원장 / 한기명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장 / 이세춘 코리아민족통일연구소장 / 박정기 전 유가협 회장 / 전무배 민족일보복간추진위원장 / 박종간 송조원 대표 / 장필수 민중의술살리기국민운동서울경기연합 홍보위원장 / 이수호 민주노총 상임지도위원 / 홍창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남정현 소설가 /

배종렬 전 전농의장 / 정동익 사월혁명회 공동의장 / 나창순 범민련남측본부 명예의장 / 박창균 범민련남측본부 고문 / 박선애 서울범민련 고문 / 최순덕 항일애국지사

□**상임공동대표**: 박순경 통일연대 명예대표 /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공동대표 겸 조직위원장**: 조영건 경남대학교 명예교수 / **대외협력위원장**: 김귀식 전 서울시교육위원회 의장 / **지역협력위원장**: 강종일 영세중립통일협의회 회장 / **여성위원장**: 김승자 남북민간교류협의회 공동대표 / **평화사업위원장**: 김관태 바른역사문화연구원 이사장 / **정책위원장**: 변진홍 전 인천가톨릭대 교수 / **청년대학생위원장**: 고창근 독도수호국제연대 집행위원장 / **홍보위원장**: 정일용 한국기자협회 회장 / **집행위원장**: 박해전 <참말로> 회장

□**공동대표**: 김승균 (사)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 / 장두석 (사)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이사장 / 정해숙 한겨레전국독자주모임 상임공동대표 / 윤한탁 교육문화공간향 대표 / 김준태 시인 / 박남수 우리민족서로돕기 상임공동대표 / 김기환 통일문화연구소 소장 / 황보윤식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윤승길 한민족운동연합 사무총장 / 심재환 민변 통일위원장 / 김승교 한국인권연구소장 / 임동규 부산기독교청년회 사무총장 / 이용중 아이건강국민연대 사무총장 / 김영희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중앙위 수석부의장 / 이재환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 안병원 전 대한석유협회 회장 /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 조동섭 남북경제협력포럼 상임공동대표 / 강정구 평화통일연구소 소장 / 박석률 민자통 의장 / 노혜경 시인 / 김현숙 시인 / 진관 불교평화

연대 상임대표 / 김현철 5.18대전충남동지회 회장 / 주정현 다물운동본부 공동대표 / 신맹순 인천연구소 소장 / 권오창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공동대표 / 권오현 양심수후원회장 / 심의섭 금강산사랑회 상임회장 / 김애영 한신대 교수 / 이석자 여성평화통일단체연합 상임공동의장 / 박상기 방송통신연구원 사무총장 / 홍재웅 6.15인천본부 상임대표 / 강용섭 대통령예비후보연대 대표 / 이창기 자주민보 대표 / 임현영 민족문제연구소장 / 김영만 6.15경남본부 상임대표 / 효림 실천불교승가회장 / 박순희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상임대표 / 이승정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 / 백현국 6.15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 이오영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 이성길 5.18기념재단 감사 / 안은찬 대전충남통일연대 상임대표 / 양은찬 시인 / 이은선 한국여성신학회 공동대표 / 김영기 단군단 대표 / 이춘영 민주평통 서울도봉구협의회회장 / 설동본 시민사회신문 발행인 / 김상일 전 한신대 교수 / 장운영 통일신문 사장 / 고승우 80해직언론인협의회회장 / 이철웅 다큐멘터리 감독 / 장동욱 슝크디자인 대표 / 윤영석 한국중교텔레비전방송 대표이사 / 조헌정 향린교회 담임목사 / 탁무권 교육과미래 이사장 / 이윤하 경희대학원 겸임교수 / 윤원석 월간 <말> 대표 / 이석기 시엔피전략그룹 대표이사

□추진위원 : 최종대 안명록 신인식 양경숙 김정식 최일섭 황완 김덕진 권성아 김효사 홍옥화 고순계 김갑식 임형신 이상철 아옥련 이서철 신용관 방중운 김미형 임순택 이효정 김동한 장명봉 황홍룡 이선재 김용이 김인술 전해원 김주민 김인각 은옥순 정미경 최방원 라상채 김귀옥 김승기 정현찬 박점이 정혜옥 강상기 차창순 조인식 조금주 김충렬 인병문 채윤석 임창우 신영희 박한길 박하늘 박명전 박진수 박상전 김홍렬 최종인 이시원 권병길 목영주 최낙현 황선재 황종서 신혜숙 황국현 황영아 신영순 신호경 이강석 이용팔 정명실 최윤호 윤보중 이민우 이철우 한영일 서상

우 최삼식 이복근 박재국 김수남 이강립 김병태 이낙호 유선근 정병호 박득진 김세신 윤승희 김대현 이진영 김순기 서찬철 노중선 박민수 김삼숙 박승섭 이경수 이병창 황은실 박병진 이영아 박찬혁 이정은 송성태 염수진 문천관 문정혁 이동근 김진배 정낙훈 심수길 김경환 임원하 이창길 조계성 김희준 손식락 허세무 강희 이광석 양승동 이준희 이천구 오기현 조대근 고승우 손석춘 윤창빈 김치관 강진욱 김동기 인병문 방의천 박기호 안영봉 이봉원 이윤옥 오형민 최용철 조세열 박한용 서우영 박수현 방학진 유연영 이창우 김인자 김원덕 박창우 남명숙 이홍길 한인철 정용상 이해식 김숙정 강상구 지정환 백자 한선희 이광석 박일규 이혜진 차우열 배교윤 박채정 고재의 오숙자 주희정 김양님 김진혁 강홍석 강민지 서경옥 정기복 방길남 김분옥 정경애 지인걸 이재한 박범 조성자 김희봉 노태구 양기원 류병균 이정숙 홍수표 채바다 신창근 윤관식 이정 김정세 김정권 전숙희 맹천수 박초선 권중희 임기란 변정수 박용길 김민하 전창일 이기형 김상근 김자동 강만길 송기숙 이정이 박광원 박경서 김성훈 장영춘 김낙중 김난수 김원웅 김철운 안재구 홍근수 서형수 이종린 정남기 류금수 이천재 가재형 곽태영 강민조 강희남 송선근 박중기 이수갑 강창덕 조용준 한기명 이세춘 박정기 전무배 박종간 장필수 이수호 홍창의 남정현 배종렬 정동익 나창순 박창균 박선애 박순경 이장희 조영건 김귀식 강종일 김승자 김관태 변진홍 고창근 정일용 박해전 김승균 장두석 정해숙 윤한탁 김준태 박남수 김기환 황보윤식 윤승길 심재현 김승교 임동규 이용중 김영희 이재한 안병원 이준희 조동섭 강정구 박석률 노혜경 김현숙 진관 김현철 주정현 신맹순 권오창 권오현 심의섭 이석자 박상기 홍재웅 강용섭 이창기 임현영 김영만 효림 박순희 이승정 백현국 이오영 이성길 안은찬 양은찬 이은선 김영기 이춘영 설동본 김상일 장운영 고승우 이철웅 장동욱 윤영석 조헌정 탁무권 이윤하 윤원석 이석기 최순덕 (이상 무순)



남북정상회담

10월2~4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경축하며
성공을 기원합니다

송조원
대표 박종간

(사)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이사장 장두석

(사)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 김승균

Corea 민족통일연구소
이사장 이세춘 / 소장 조영건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이장희

(사)충효예실천운동본부
이사장 김철운

실천불교승가회
회장 효림스님



한국언론재단
이사장 정남기

교육인쇄
사장 이종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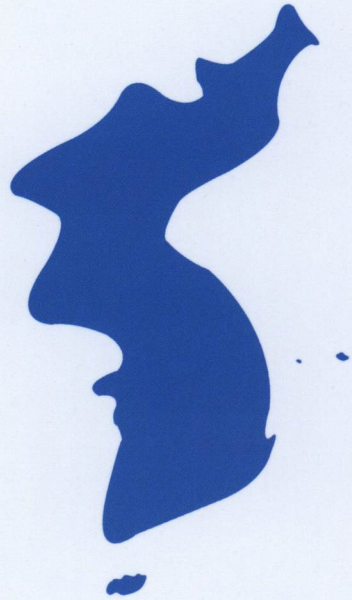
(주)에듀왕
회장 박명전

해성자원
대표 이석구

노사모
(www.nosamo.org)

바른역사문화연구원
이사장 김관태

〈참말로〉(www.chammalo.com)
회장 박해전



남북정상회담경축국민대회 공동추진위원회

110-812 서울 종로구 명륜동3가 153-1 초록마을 204호 [전화](tel:02-747-6150) 02-747-6150 [팩스](tel:02-765-6150) 02-765-6150
[전자우편](mailto:615best@hanmail.net) 615best@hanmail.net [회비 입금계좌](#) 국민은행 466401-01-243386 박해전(공동위원회)